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 2020. 5.

국립국어원 2020. 5.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2020. 5.

국립국어원,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발간

국어원 소식(1)
세종대왕 탄신 623돌 맞이 행사 “세종대왕을 찾아라!”

실전 띄어쓰기(1)
대단한 부부의 세계-수량을 나타내는 말 띄어쓰기

쉽게 읽는 문법 용어(1)
조사의 종류

표준어 바깥의 세상
보가지와 까치복

말뭉치로 바라보기
장질부사에서 호열자, 그리고 감기로

우리말 다듬기(1)
새 일상, 새 기준

실전 띄어쓰기(2)
비와 당신의 이야기-‘듯(듯이)’ 띄어쓰기

쉽게 읽는 문법 용어(2)
대명사의 종류와 용법

국어정책 통계
국민들의 읽기·쓰기 생활 실태

국어원 소식(2)
‘한알 방송’ 보고 쉬운 우리말 찾기!

우리말, 그리고 사람
한글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한 세종대왕

목차

쉽표, 마침표. | 2020. 5.

국어 배우기

2	쉽게 읽는 문법 용어	조사의 종류
6		대명사의 종류와 용법
10	표준어 바깥의 세상	보가지와 까치복
14	실전 띄어쓰기	대단한 부부의 세계-수량을 나타내는 말 띄어쓰기
16		비와 당신의 이야기-‘뒹(뒹이)’ 띄어쓰기

국어 알리기

18	국어원 소식	세종대왕 탄신 623돌 맞이 행사 “세종대왕을 찾아라!”
20		국립국어원,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발간
22	국어정책 통계	국민들의 읽기·쓰기 생활 실태
26	우리말 다듬기	새 일상, 새 기준
28		‘한알 방송’ 보고 쉬운 우리말 찾기!

국어로 바라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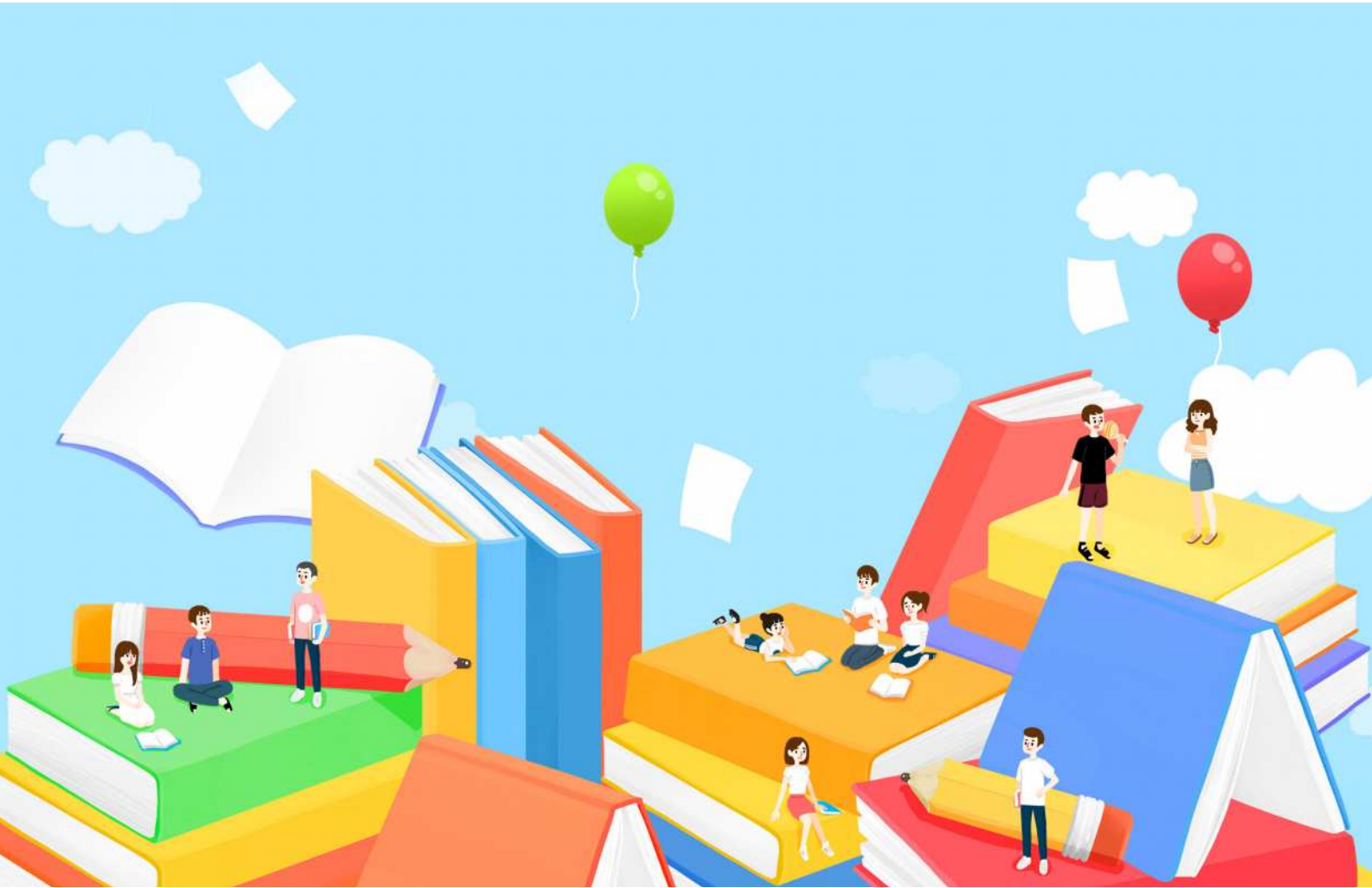
30	말뭉치로 바라보기	장질부사에서 호열자, 그리고 감기로
34	우리말 그리고 사람	한글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한 세종대왕

우리말 풀기

42	우리말 풀기	독자 참여 행사
----	--------	----------



조사의 종류



글. 이선웅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조사(助詞)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조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는 이번 호에서는 흔히 오해하고 있는 사실 하나를 확인하면서 시작하도록 한다.

(1) 말은 빠르고 소는 느리다.

사람들은 흔히 (1)에서 ‘말은, 소는’이 주어이므로 조사 ‘은/는’을 주격 조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제 조사의 종류를 살피면서 그것이 왜 잘못된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조사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격 조사이다. 격(格)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는 많은 학문적 문제가 있으나, 국어의 학교 문법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문장 성분의 종류를 표시하는 체계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가령 문장 성분 중 하나인 주어를 표시하기 위해 조사 ‘이/가’를 사용하는데, 그렇게 각 문장 성분들을 표시하는 체계를 가리켜 격이라고 하는 것이다.

(2) 동생이 집에서 책을 읽는다.

(3) *동생을 집이 책에서 읽는다.

주어에 ‘이’를 붙이고 부사어에 ‘에서’를 붙이고 목적어에 ‘을’을 붙인 (2)는 문법적인 문장이지만, (3)과 같은 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이는 ‘이, 을, 에서’가 제자리를 찾아가지 못하고 다른 문장 성분의 자리에 쓰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떤 문장 성분의 종류를 드러내기 위해 쓰이는 조사가 격 조사이다. 그래서 격 조사의 이름은 대개 문장 성분의 이름에 맞추어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부사격 조사’ 등으로 불리게 된다.

(4) 언니는 냉면을 좋아해요.

(5) 언니가 냉면은 좋아해요.

‘은’과 ‘는’은 같은 형태소의 이형태들이다. 그런데 (4)의 ‘언니는’을 보면 ‘는’이 주어에 붙었으므로 주격 조사인 듯하지만 (5)의 ‘냉면은’을 보면 목적어에 붙었으므로 목적격 조사인 듯하다. 이것은 ‘은/는’이 격 조사가 아님을 보여 준다. 어떤 문장 성분의 종류를 표시하기 위해 쓰이는 조사가 격 조사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은/는’은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기 위해 쓰인 것이다. (4)에서는 이 문장이 ‘언니’에 대한 문장임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되었고, (5)에서는 ‘냉면’과 대조되는 다른 것이 있음을 은근히 드러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처럼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한다. 보조사는 간혹 특수 조사라고도 불리나 요즘에는 거의 보조사로 불린다.

격 조사가 주로 체언 뒤에 쓰이는 반면, 보조사는 앞에 오는 말이 매우 다양하다.

- (6) 치타가 빨리도 달리는구나.
 (7) 제발 떠나지나 마라.

국어에는 수많은 보조사가 있다. 이 글은 보조사 하나하나를 예시하며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글이 아니므로, 독자는 보조사 앞에 올 수 있는 말을 확인하기만 하면 된다. (4)와 (5)에서는 보조사 ‘은/는’이 체언에 붙었는데, (6)에서는 보조사 ‘도’가 ‘빨리’라는 부사에 붙었고 (7)에서는 보조사 ‘나’가 ‘떠나지’라는 용언의 활용형에 붙었다. (6), (7)은 예시일 뿐인데 보조사는 이 밖에도 다양한 대상들에 붙을 수 있다.

- (8) 책과 음악은 영혼의 양식이다.
 (9) 나는 공책하고 연필을 샀다.

(8)과 (9)에는 둘 이상의 체언을 이어 준다는 뜻에서 접속 조사라고 불리는 ‘과’(이형태는 ‘와’)와 ‘하고’가 쓰였다. (8)에서는 ‘책’과 ‘음악’을 이어 주고 (9)에서는 ‘공책’과 ‘연필’을 이어 줌을 알 수 있다.

- (10) 여기서 형이랑 형수랑 알콩달콩 지냈다.
 (11) 형이 책이며 연필이며 지우개며 잔뜩 샀다.

(10)의 ‘(이)랑’이나 (11)의 ‘(이)며’는 앞뒤의 체언을 이어 주는 기능보다는 여러 체언을 열거하는 기능이 더 강해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는 작은 것이다. (10)에서 ‘형이랑 형수랑’을 ‘형이랑 형수가’로 쓰면 ‘(이)랑’이 ‘와/과’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에서 그 차이가 작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랑’이나 ‘(이)며’ 등도 접속 조사로 다루는 것이 보통이다.

‘조사’의 종류, 다시 정리해 볼까요?

격 조사

- 어떤 문장 성분의 종류를 드러내기 위해 쓰이는 조사
- 주로 체언 뒤에 쓰임

보조사

-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는 조사
- 앞에 오는 말이 매우 다양함

접속 조사

- 둘 이상의 체언을 이어 주는 조사

대명사의 종류와 용법



글. 이선웅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 교수)

이번 호에서는 대명사의 종류와 용법을 살피면서 대명사와 관련한 여러 문법 용어를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인칭 대명사와 지시 대명사를 보기로 한다.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고, 지시 대명사는 사물, 장소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 (1) 나, 저, 우리, 저희
- (2) 너, 너희, 당신, 그대
- (3) 그, 이분, 저이, 이놈
- (4) 이, 이것, 그것, 저거
- (5) 여기, 저기, 그쪽, 그곳

(1)~(3)은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를 차례로 예시한 것이다. 1인칭은 화자, 2인칭은 청자, 3인칭은 그 밖의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여러 사람을 가리킬 경우 화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1인칭, 청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2인칭으로 본다. 화자와 청자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으면 1인칭으로 본다. (4), (5)는 사물 대명사, 장소 대명사를 차례로 예시한 것이다.

그런데 영어의 'it'을 3인칭 대명사로 다루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론적으로 말하면 사물 대명사도 3인칭 대명사로 다루어야 하지만, 국어 문법에서는 대개 '인칭(人稱)'의 '인'이라는 말을 중시하여 사물 대명사를 포함한 지시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와 구별하고 있다. 아래에서 설명할 의문 대명사, 부정 대명사, 재귀 대명사는 모두 분류상으로는 인칭 대명사 혹은 지시 대명사에 포함되는 것이나 의미적 특성이 워낙 뚜렷해 따로 명칭을 붙인 것이다.

- (6) 누구, 무엇(무어, 뭐), 언제, 어디
- (7) 과목들 중에서 너는 뎡를 제일 좋아하니?
- (8) 나 지금 뎡 먹고 있으니까 좀 이따 전화해.

(6)은 의미 해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7)에서처럼 알지 못하는 대상을 묻기 위해 사용하는 대명사를 의문 대명사 혹은 미지칭 대명사라고 한다. 반면 (8)에서처럼 어떤 대상을 불특정하게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대명사를 부정 대명사 혹은 부정칭 대명사라고 한다. 불특정하게 가리킨다는 것은 꼭 집어서 가리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의 '부정(不定)'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이와 같은 뜻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청자 입장에서는 이 대명사의 지시 대상이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 용어 사용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의문 대명사, 부정 대명사를 줄여서 각각 의문사, 부정사라고도 하는데, 이 줄임 용어 사용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 (9) 거기 왜 갔니?
- (10)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할게요.

(9)의 ‘왜’는 부사이고 (10)의 ‘무슨’은 관형사인데, 이들 역시 각각 미지칭, 부정칭의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의문 부사, 부정 관형사라고 할 수 있고, 이들도 의문사, 부정사로 줄여 이를 수 있다. 요컨대 의문사, 부정사가 각각 반드시 의문 대명사, 부정 대명사를 가리키는 용어는 아니다.

- (11) 동생이 자기/제 방을 깨끗이 청소해요.
- (12) 할머니께서 당신이 겪으신 고난을 얘기해 주셨다.

(11)에서 ‘자기, 제’는 앞에 나온 ‘동생’을 가리키고, (12)에서 ‘당신’은 앞에 나온 ‘할머니’를 가리킨다. 이처럼 앞에 나온 체언을 다시 가리키는 대명사를 재귀 대명사, 줄여서 재귀사라고 한다. 재귀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자기’가 많이 쓰이고 다소 낮게 보는 대상에 대해서는 ‘저, 제’를, 높이 보는 대상에 대해서는 ‘당신’을 쓴다.

- (13) 나는 그분을 존경해.
- (14) 여보, 그것 좀 집어줄래요?
- (15) 시험이 연기되었어. 그거 알아?
- (16) 이거 알아?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거.

대명사의 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3), (14)의 ‘나, 그분, 그것’은 어떤 상황 맥락에서 파악되는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용법을 직시(直視)라고 한다. 반면 (15), (16)에서 ‘그거, 이거’는 말글 속에서 앞 혹은 뒤에 나타난 다른 말을 대신하는 용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용법을 대용(代用)이라고 한다. 요컨대 직시의 지시 대상은 특정 상황 맥락에 존재하는 반면, 대용의 지시 대상은 대용어의 앞 혹은 뒤에 언어 표현으로 존재한다는 차이가 있다.

‘대명사’의 종류와 용법, 다시 정리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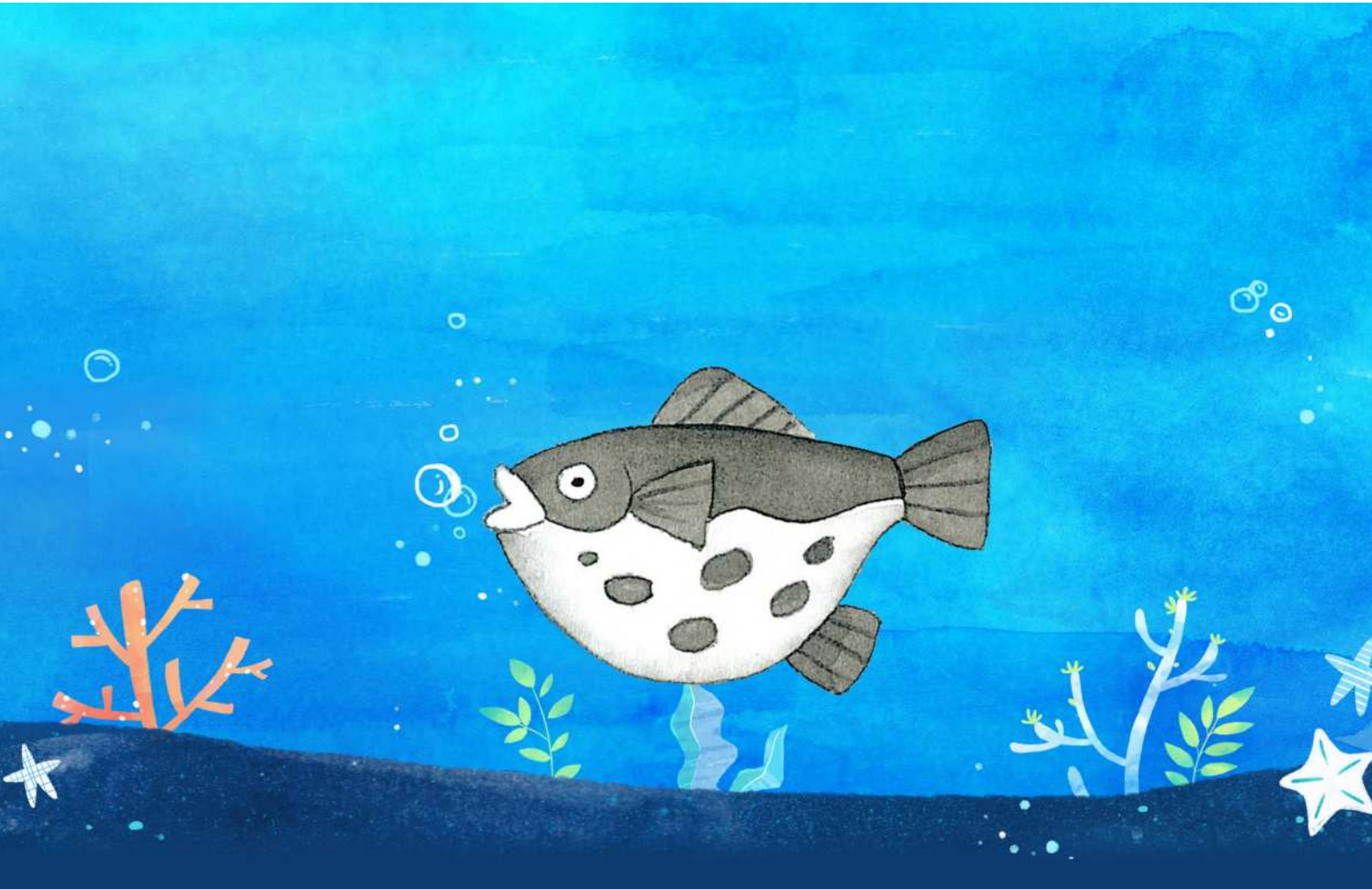
1. 종류

- **인칭 대명사**: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
- **지시 대명사**: 사물, 장소 등을 가리키는 대명사
- **의문 대명사/미지칭 대명사**: 알지 못하는 대상을 묻기 위해 사용하는 대명사
- **부정 대명사/부정칭 대명사**: 어떤 대상을 불특정하게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대명사

2. 용법

- **직시**: 상황 맥락에서 파악되는 대상을 가리키는 용법
- **대용**: 말글 속에서 앞 혹은 뒤에 나타난 다른 말을 가리키는 용법

보가지와 까치복



글. 이길재(거례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서해에는 봄부터 난류의 흐름을 따라 밀려드는 조기를 비롯하여 갈치, **{보가지}**, 까나리, 농어, 방어, 뱀어, 송어, 은어, 홍어, 민어 등 그 수를 다 셀수 없을만치 별의별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엄단웅(1972): 세 아이》(북한)

갈치, 까나리, 농어, 방어, 뱀어, 송어, 은어, 홍어, 민어 등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익숙한 물고기 이름들이다. 그런데 ‘보가지’는 낯설다. 남한에서 ‘보가지’는 ‘까치복’과 같은 말이다.

- 그러더니 순식간에 **{까치복의}**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천금성(1992): 노어부와 소년》(남한)
- 길이는 뱀장어의 삼분의 일이 될까 말까 한, 대가리는 불룩한 것이 빛까지도 **{보가지}** 같고 꼬리는 빨고 ¹⁾뽀뽀하고 날카로웠다. 《허준(1946), 잔등》(남한)

1) 끝이 차차 가늘어져 뽀족하다.

그런데 북한에서 ‘보가지’는 ‘까치복’이 아니라 ‘복어’를 이르는 말이다. ‘보가지’는 ‘복어’의 ‘복’과 ‘작음’의 뜻을 더하는 접사 ‘-아지’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말이다([복+-아지]>보가지). 북한에서 ‘까치복’은 ‘무늬보가지’인데, 이는 ‘까치복’의 등에 있는 무늬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무늬보가지’ 말고도 ‘보가지’가 결합된 북한말로는 ‘가시보가지’(가시복), 강보가지(황복), 물보가지(개복치), 부채보가지(불뚝복), 풀색보가지(청복) 등을 찾아볼 수 있다.

- 현재 많은 나라들에서 우레기, **{가시보가지}**, 넙치를 비롯한 정착성물고기들과 바스레기,²⁾ 대합조개, 밥조개를³⁾ 비롯한 조개류, 청어, 연어, 송어를 비롯한 회유성물고기들, 해삼, 새우, 게, 문어, 오징어를 비롯한 수십여종의 바다동물을 재배어업으로 생산하고있다. 《미상(2009): 날로 발전하는 재배어업》(북한)
- **{물보가지}**는 팔딱이와 꾸불이가 유심히 보는줄도 모르고 날바다에다 아무렇게나 알을 막 쏘고 있었습니다. 《박상용(1995): 엄마를 찾는 두 물고기》(북한)

2) 바지락
3) 조가비

남한에서 복어는 지역에 따라 ‘복다리, 복재이, 복쟁이, 뽕쟁이, 뽕지’ 등으로도 불린다. ‘복다리’는 ‘복’과 접사 ‘-다리’가 결합된 말이며([복+-다리]), ‘복쟁이’는 ‘복’과 접사 ‘-쟁이’가 결합된 말이며([복+-쟁이]), ‘복재이, 뽕쟁이, 뽕지’ 등은 ‘복쟁이’가 변하여 생겨난 말들이다.

- 다래끼 속에는 천둥게와⁴⁾ 박하지게가 몇 마리 기어다니고 있었고 망둥이와 송어새끼, 황새기 몇 마리, 자잘한 **{복쟁이}** 몇 손이 고작이었다. 《이문구(1972): 해변》(남한)
- 요 **{뽕쟁이}** 같은 놈이 뭐라카노? 일마, 그라몬 난 먼 재미로 니가 떠먹다 나똥 쉰 죽사발에 은술가락 집어 넣겠노? 《이문열(1981): 젊은날의 초상》(남한)
- 너, 학교 다닐 때 내 별명 못 들었니, **{뽕지라고}** 복어 말이야. 《전성태(1998): 태풍이 오는 계절》(남한)

4) 방게

속풀이에 일등 공신인 ‘복국’을 북한에서는 ‘보가지국’이라고 한다.

- 봉준의 말대로 형보는 **{보가지국}** 무척 좋아하는지 연신 후룩후룩 마시더니 덩실하니 살점만 남고 어느새 사발밑이 드러났다. 《손응준(1979): 해쑈는 바다》 (북한)
- 일년전에 우리 형님이 이 집의 **{보가지국}** 사먹고 죽은것을 얼마전에야 알았소. 《박혜영(2003), 봉이 김선달》 (북한)

‘복국’에는 ‘복알(복어알)’이 들어야 맛있이고, ‘보가지국’에는 ‘보가지알’이 들어야 제맛이다. 남북 관계가 좋아져 ‘평양 소주’에 ‘보가지알’ 가득한 ‘보가지국’을 시원하게 먹어 볼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 수백 차례 **{복어알}** 먹었지만 독이 무서웠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조헌용(2010), 사막에서 온 여자》 (남한)
- 그래 나는 안방에서 허기진 놈 **{복알}** 집어 삼키듯 그 한 그릇을 다 맛나게 따 담고는... 《서정주(1994): 미당 자서전》 (남한)
- 바다가에서 자라난 아이가 **{보가지알}** 먹으면 죽는다는걸 모르는 제 잘못이지. 《박상용(2005): 참새가 떨어졌다》 (북한)

대단한 부부의 세계 수량을 나타내는 말 띄어쓰기

실전 띄어쓰기



실전 띄어쓰기

총 공사 비용(36형)
㎡당 삼십일만 이천오백 원(312,500원)

목재	규격	수량	단가	가격
타일	100X100mm	이백 장	일천오백 원	삼십만 원
시멘트	40kg	열 포	일만 삼천 원	삼십만 원
조명	60W	다섯 개	이만 이천 원	삼십만 원
벽지	20m	열 개	사만 이천 원	삼십만 원

두 사람은
이사할 집을 직접 고치기로 했습니다.

실전 띄어쓰기

여기서 백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관리를
잘하면 가능하지!

수량을 나타내는 말의 띄어쓰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까요?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수량을 나타내는 말, 이럴 때 띄어 써요!

①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써요.

두 사람, 이백 장
이십 미터, 육백 원, 오 그램, 삼십 년, 육 개월

② 수를 적을 때는 '만(萬)' 단위로 띄어 써요.

우리나라 인구 수는 오천백칠십팔만 오백칠십구 명이다.
칠천삼백사십만 오천삼백 원

수량을 나타내는 말, 이럴 때 붙여 쓸 수 있어요.

① 순서를 나타낼 때나 숫자와 함께 쓸 때는 붙여 써도 돼요.

사층, 제삼장
200센티미터, 10년, 34살, 100세

② 금액을 적을 때는 붙여 쓸 수 있어요.

월급: 삼십일만오천육백칠십팔원정
돈: 일백칠십육만오천원

계약서나 명세서 등에서
돈의 액수를 적을 때에는
변조 등의 사고를 방지하려고
붙여 쓰는 관례가 있어요.

실전 띄어쓰기

국립국어원

실전 띄어쓰기

국립국어원



부동산 계약서
계약금: 사천백오십만원(정)
(₩41,500,000)
2020년 4월 6일
잔금: 사천천오백만원(정)
(₩415,000,000)
2020년 5월 12일

함께 산 지 사천 일이 넘는 이 부부는
꿈꾸던 집을 장만했어요.

실전 띄어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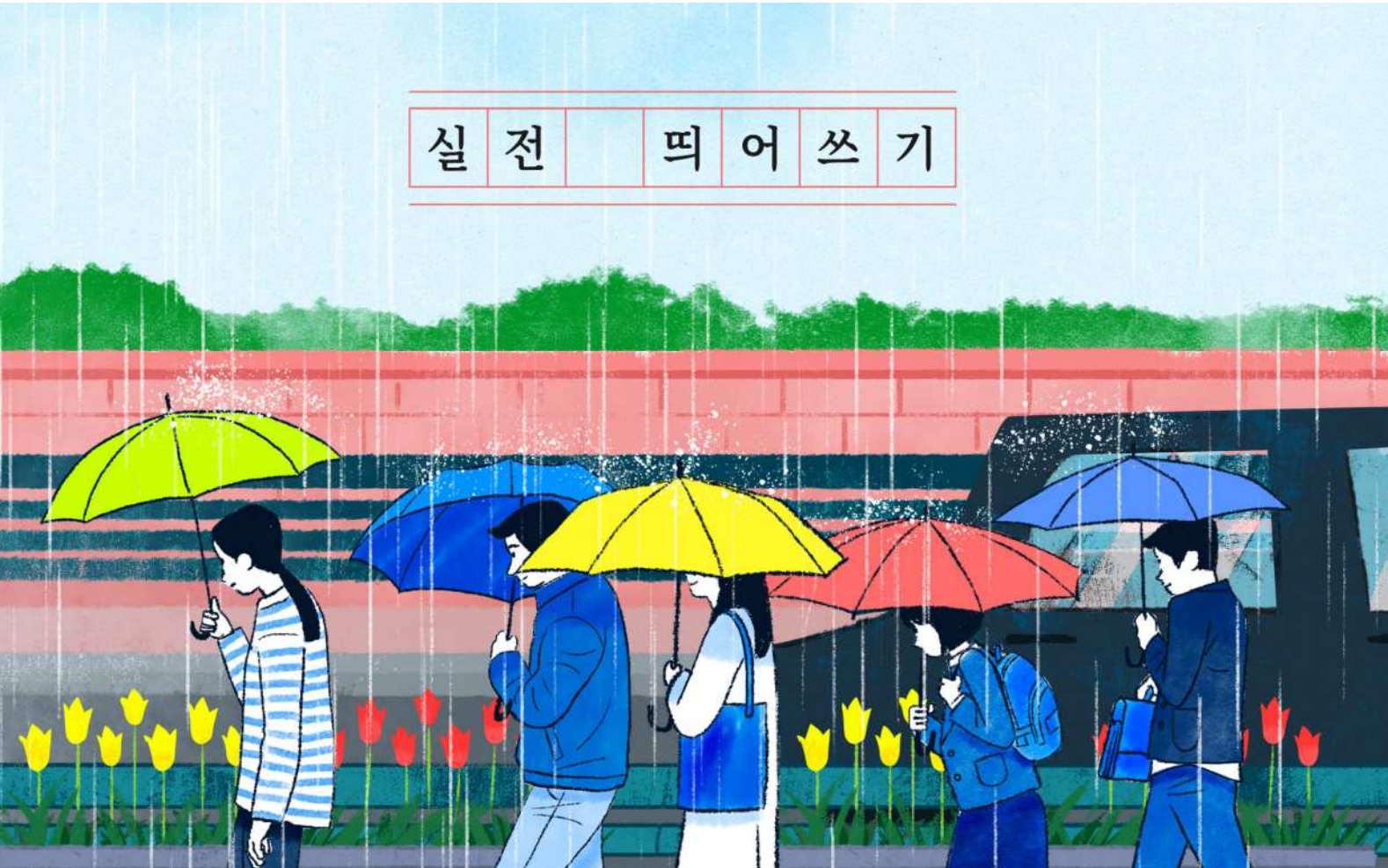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함께 있어 든든한 두 사람처럼
바른 띄어쓰기가 든든한 우리말을 만듭니다!

비와 당신의 이야기 '뚫(뚫이)' 띄어쓰기

실 전 띄 어 쓰 기



알 뚫 말 뚫 자주 헛갈리는 '뚫'의 띄어쓰기,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먼저, 뚫이 의존 명사로 쓰였다면 띄어 쓰고, 연결 어미로 쓰였다면 붙여 쓴다는 것을 명심해 두세요.

'뚫'의 띄어쓰기

이럴 때 띄어요!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을/은/는 등)뒤에 쓰이는 '뚫'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써요!

- 뚫이 기뻐다.
- 손에 잡힐 뚫 잘 보인다.
- 그는 곧 떠날 뚫이 보인다.
- 그녀는 답답하다는 뚫이 말하였다.

정도가 비슷함을 나타낼 때

점작이나 추측을 나타낼 때

'뚫'의 띄어쓰기

이럴 때 붙여요!

용언의 어간 뒤에 쓰이는 '뚫'은 어미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요!

- 거대한 파도가 일뚫이 사람들의 가슴에 분노가 일었다.
- 그는 뚫 돈을 쓴다.

뒤 절의 내용이 앞 절의 내용과 거의 같음을 나타낼 때

* '뚫싶다'와 같은 뜻의 '뚫하다'는 보조 형용사이므로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 있어요.

-비가 올 뚫하다.(O) -비가 올뚫하다.(O)

-악속에 늪을 뚫하다.(O) -악속에 늪을뚫하다.(O)



세종 탄신 623돌 맞이 행사 “세종대왕을 찾아라”



5월 15일은 우리의 소중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님의 탄신입니다. <쉽표, 마침표>에서 세종대왕님을 함께 찾아봐요!
아래 문제를 누르면 단서가 있는 기사를 볼 수 있어요. 문제를 맞힌 분들 중 100분을 뽑아 선물도 드리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문제 1.

세종은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했습니다. 그렇다면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완성되어 백성에게 반포된 해는 언제일까요?

① 1444년 ② 1445년
③ 1446년 ④ 1447년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단서: 한글날 특집호
2019년 10월 '안녕! 한글아!'

문제 2.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지 3년 후, 세종의 명에 따라 수양대군이 어머니 소헌왕후의 명복을 빌고자 훈민정음으로 지은 최초의 산문집 제목은 무엇일까요?

① 석보상절 ② 월인천강지곡
③ 월인석보 ④ 동국정운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단서: 한글 위인 열전
2015년 2월 '세종의 뜻을 받들어 훈민정음을 널리 알린 세조'

문제 3.

경기도 00시에는 세종대왕의 영릉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① 포천 ② 남양주
③ 수원 ④ 여주

국립국어원 <쉽표, 마침표>

단서: 우리말을 여행하다
2019년 5월 '여주에 드리운 세종대왕의 포근한 햇살'

·참여 방법

1. “세종대왕을 찾아라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동의(필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5. 12.~2020. 5. 22.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5월 28일 자 <쉽표, 마침표>에 공고함

·선물



국립국어원,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 발간



국립국어원은 새로운 언어 예절 안내서인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를 발간하였다. 호칭·지칭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구성하였다.

가족 형태의 변화, 수평적 인간관계 추구 등 다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언어 예절의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2017년부터 진행한 실태 조사와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를 발간하였다. 이 책은 그간 언어 예절의 지침서 역할을 해 왔던 『표준 언어 예절』(2011)의 개정판은 아니다.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는 반드시 어떤 호칭·지칭어를 써야 한다는 규범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서로 배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호칭·지칭의 정답, 반드시 필요할까

『표준 언어 예절』(2011)은 전통적인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호칭·지칭어를 대체로 유지하고 있어 남성 중심적인 비대칭적인 표현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점차 전통적인 언어 예절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저마다 처한 환경과 생각이 다름에도 획일적으로 호칭·지칭어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뿐더러 우리 언어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는 기존의 호칭·지칭어를 포용하면서도 그동안 『표준 언어 예절』에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조화로운 언어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시대적 흐름에 맞는 다양한 대안 제시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에서는 그동안 남녀 차별적인 것으로 지적되었던 호칭·지칭어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대신 ‘효자동 할머니’, ‘광주 할아버지’라고 해도 돼요.**

전통 언어 예절에서는 아버지 쪽은 가까움을 뜻하는 ‘친(親)-’을 쓰고, 어머니 쪽은 바깥을 뜻하는 ‘외(外)-’를 써서 구분하여 왔는데, ‘효자동 할머니’, ‘광주 할아버지’처럼 지역 이름을 넣어 친·외가 구분 없이 표현할 수 있음.

- **나보다 서열은 낮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겐 ‘-님’을 붙여도 돼요.**

가족 간에 나이와 서열이 역전되는 경우에는 호칭이나 지칭 뒤에 ‘조카님’, ‘처제님’, ‘동서님’처럼 ‘-님’을 붙여 존중하는 뜻을 나타낼 수 있음.

-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도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하게 부를 수 있어요.**

남녀 차별적인 호칭으로 관심을 모았던 ‘도련님’, ‘서방님’, ‘아가씨’ 등은 자녀와의 관계에 기대어 ‘○○[자녀 이름] 삼촌/고모’ 등으로 불러도 되고, 관계가 친밀하다면 ‘○○씨’라고 부르거나 이름을 직접 부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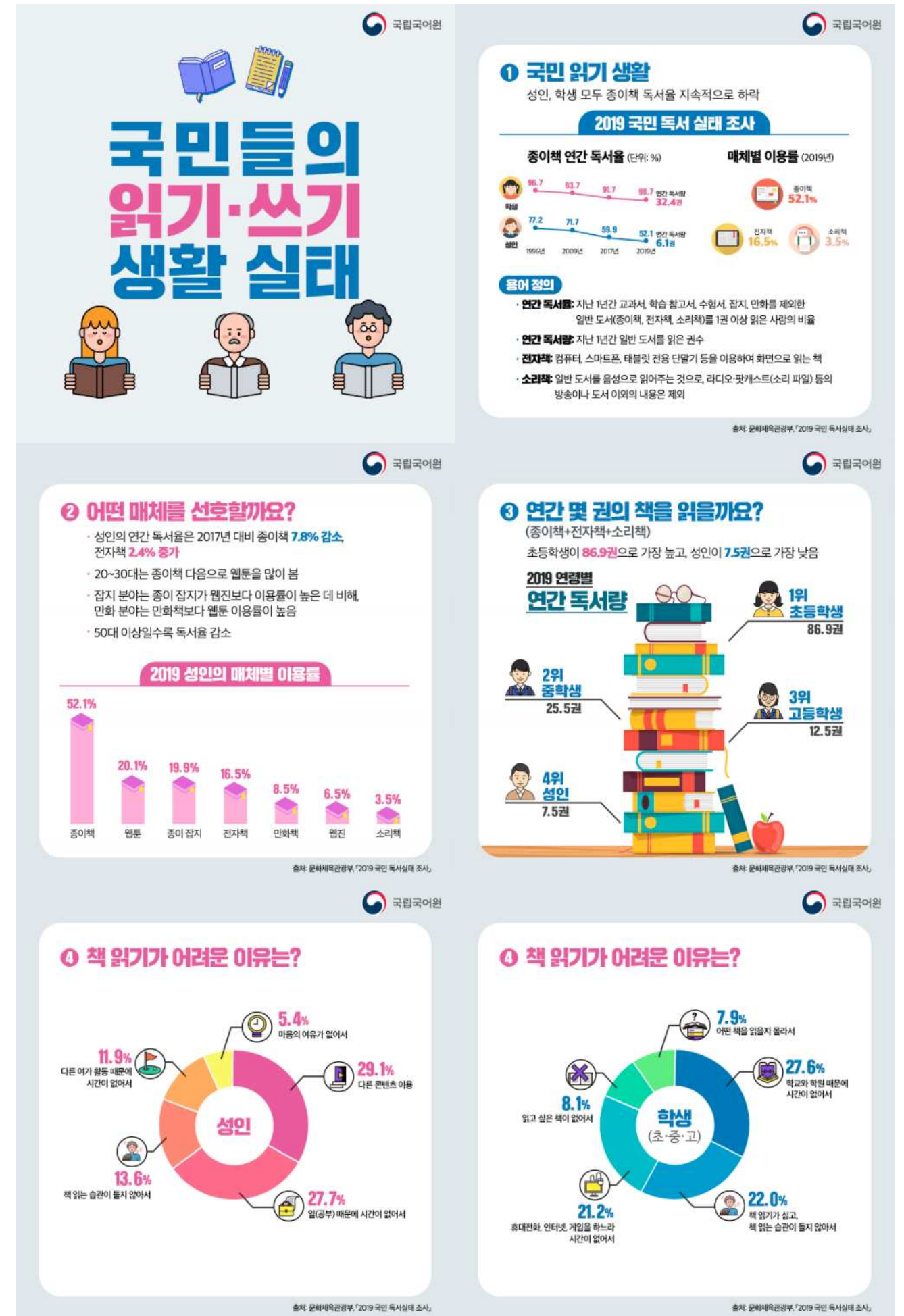
국립국어원장은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는 정답이나 규범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통적인 호칭·지칭어에 얽매어 우리 사회가 굳이 치르지 않아도 될 갈등과 혼란을 줄이는 데에 이 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하였다.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는 국립국어원 누리집 > 자료 > 연구·조사 자료 > 기타 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민들의 읽기·쓰기 생활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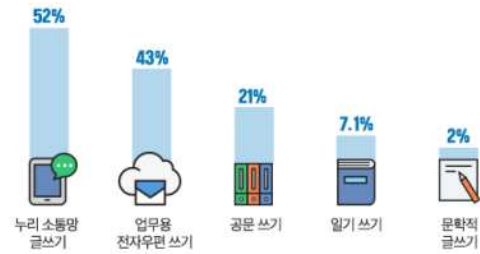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동영상, 게임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많아진 요즘, 우리 국민들의 읽기와 쓰기 생활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전자책, 소리책 등 독서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종이책으로 책을 읽는 사람은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종이에 편지를 쓰는 대신 전자우편을 주로 이용하고, 일기나 문학적인 글쓰기보다는 누리 소통망에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간결한 글쓰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읽기와 쓰기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살펴보세요.



⑤ 성인의 쓰기 생활

- 회사에서는 전자우편(43%), 공문과 보고서(21%)를 주로 쓰고, 일상에서는 주로 누리 소통망(52%)에 글을 씀
- 일기 쓰기(7.1%)와 문학적 글(2%)은 거의 쓰지 않음

유형별 글쓰기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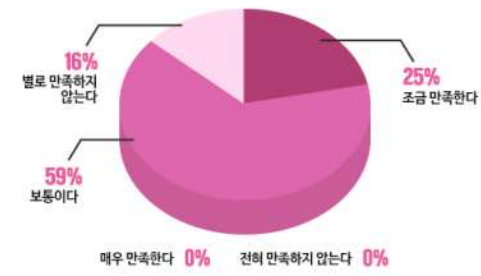


출처: 국립국어원 「직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보고서(2015)」

⑥ 성인은 자신의 쓰기 능력에 만족할까?

- 자신의 쓰기 능력 평가는 보통(59%)이 가장 높음

성인의 쓰기 능력에 대한 자기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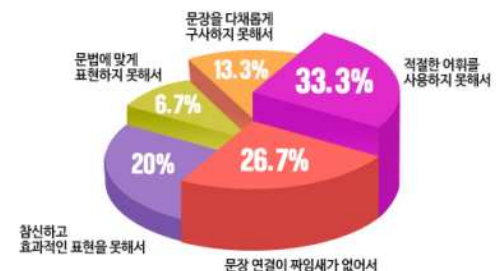


출처: 국립국어원 「직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보고서(2015)」

⑥ 성인은 자신의 쓰기 능력에 만족할까?

- 적절한 어휘(33.3%), 문장 연결(36.7%), 참신한 표현(20%) 등에서 쓰기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낌

성인이 자기 쓰기 능력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



출처: 국립국어원 「직문(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보고서(2015)」

새 일상, 새 기준



우리말 다듬기

새 일상, 새 기준

뉴노멀

새 일상 #01
거리는 멀리
마음은 가까이

창의적인 **새 일상**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말 다듬기

새 일상 #02 생활 방역

- 이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 사람과 사람 사이 양팔 간격 거리 두기
-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리기
- 외출할 땐 마스크 쓰기
- 자주 환기하고 소독하기

우리의 **새 일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말 다듬기

새 일상 #03
승차 도서 대여

실표 도서관

차에 탄 채로 책을 빌리거나 진료를 받는 **새 일상**이 생겼어요.

우리말 다듬기

새 일상 #04
화상토론회

대면회의를 **화상회의**, **화상토론회**(웨비나)로 대체하는 것도 **새 일상**이 되었지요.

우리말 다듬기

새 일상 #05
온라인 결혼식

‘결혼식 생중계’처럼 색다른 결혼 문화도 **새 기준**이 되었지요.

우리말 다듬기

#뉴_노멀을 **새 일상**으로
#웨비나를 **화상_토론회**로

새 일상, 새 기준은 뉴 노멀을 다듬은 우리말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말 다듬기

우리 함께 희망이 가득한 **새 기준**을 만들어 가요!

시대가 변해도 **새 일상**에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주변을 살피는 여유만은 변하지 말아야겠죠?

‘한알 방송’ 보고 쉬운 우리말 찾기!



“오늘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어택, 제로 웨이스트, 플로깅을 할 거예요. 엄마도 같이하실래요?”

“

...응? 도대체 무슨 말이니?”

”



어려운 외래어, 꼭 써야 할까요?

듣기에도 쓰기에도 낯선 플라스틱 어택, 제로 웨이스트, 플로깅 등 어려운 외래어들을 대신할 쉬운 우리말들을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한알 방송'에서 확인해 보세요!



1. 한알이가 가장 마지막에 소개한 ‘다듬은 말’은 무엇일까요?

- ① 생활 속 쓰레기 최소화
- ② 과대포장 거부운동
- ③ 영상일기
- ④ 쓰담 달리기

2. 영상에서 소개된 ‘다듬은 말’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말을 적어 주세요.

3. 이 영상을 자신의 누리소통망에 공유하고, 공유한 주소를 적어 주세요.

(#국립국어원 #다듬은말 #새말모임 #쉬운우리말 해시태그 필수)

·참여 방법

1. “영상 보고 문제 풀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동의(필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5. 26.~2020. 6. 8.

·당첨자 발표

6. 12.(금) 국립국어원 <썸표, 마침표.> 누리집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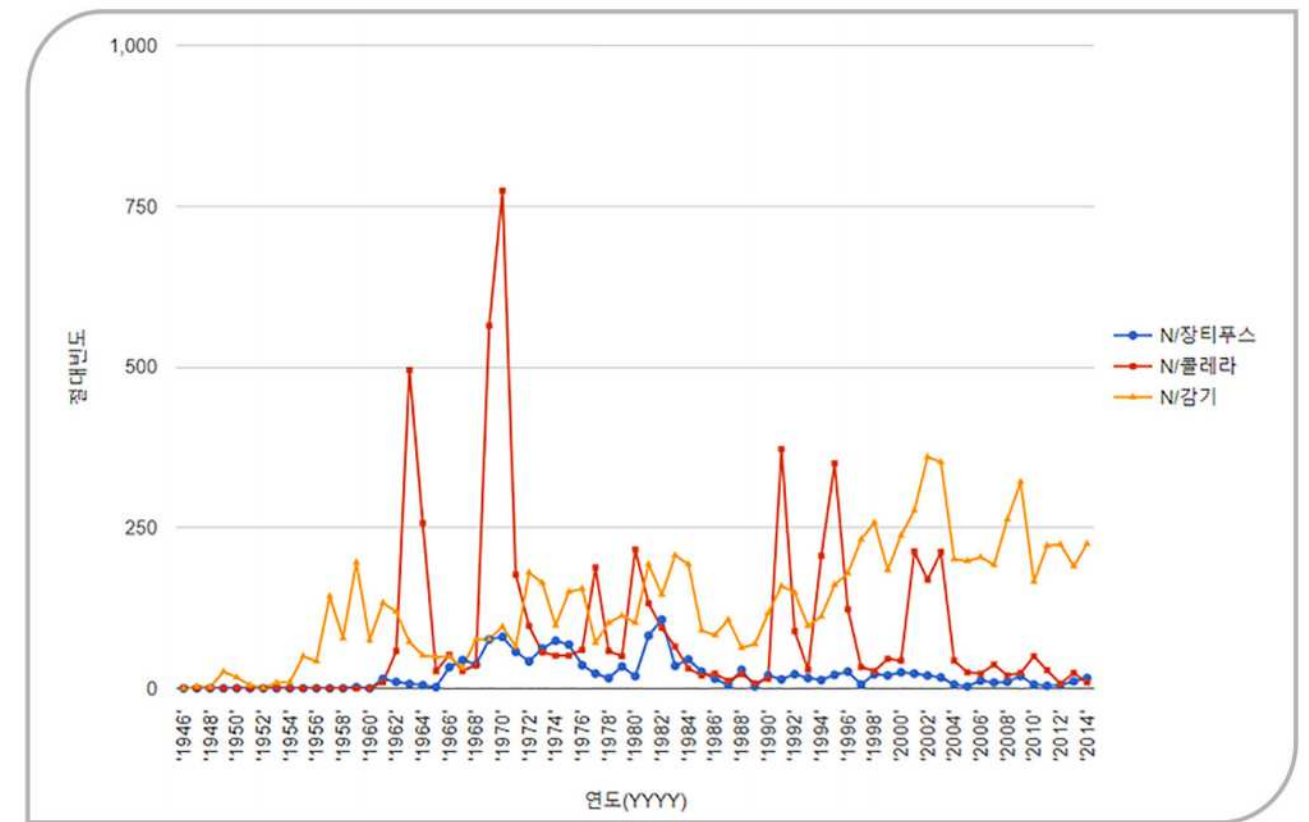
장질부사에서 호열자, 그리고 감기로



글. 김일환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질병이 있다. 지금까지 인류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규모의 역병들을 차례차례 정복해 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19가 위세를 떨치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은 이 질병의 백신도 곧 개발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질병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모든 질병은 차차 정복될 것이고 인류는 질병의 굴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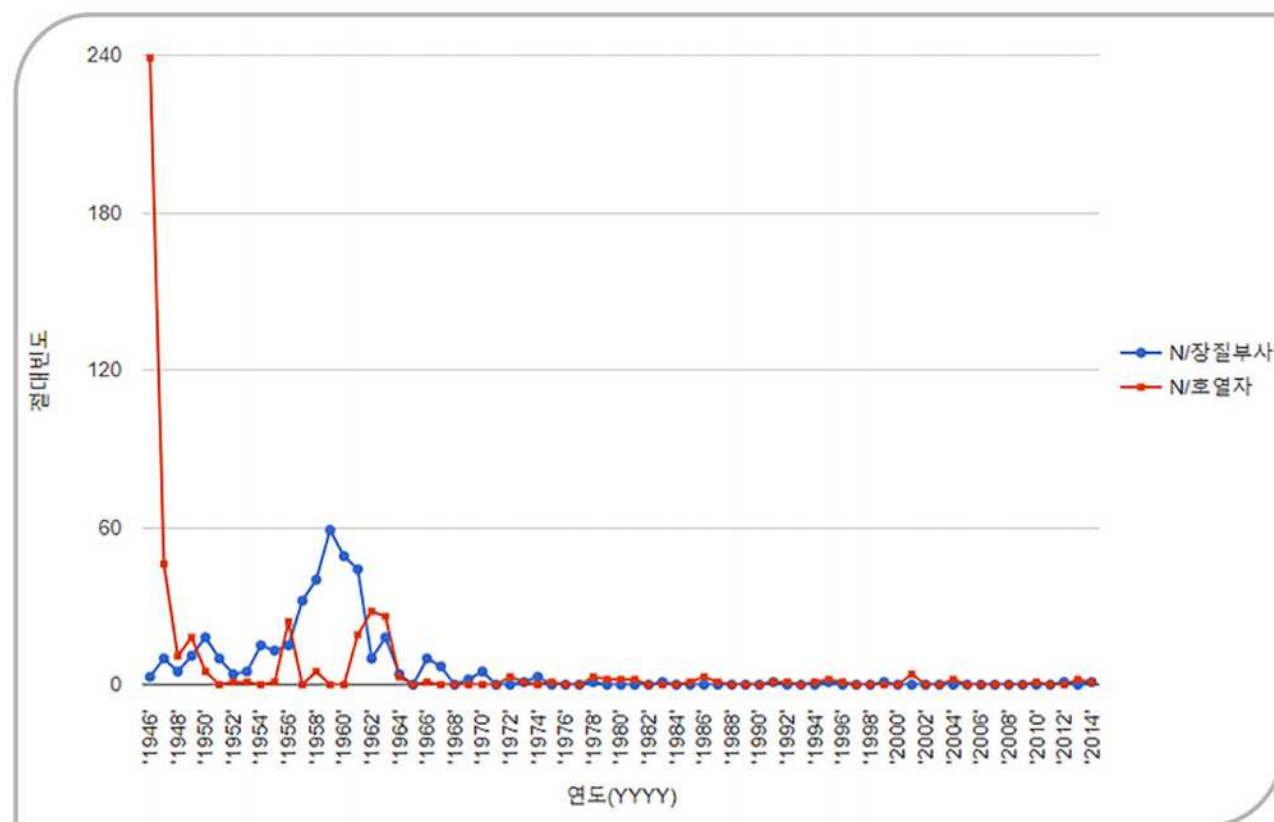
이번 글에서는 우리에게 지난 70여 년간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질병은 무엇이었는지 동아일보 말뭉치를 통해 그 일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 <그림 1> '장티푸스, 콜레라, 감기'의 연도별 사용 빈도

먼저 대표적인 질병으로 손꼽히는 '장티푸스, 콜레라, 감기'의 연도별 사용 빈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서는 '콜레라'의 간헐적인 폭발 양상이 주목된다. 즉 다른 두 질병에 비해 빈도의 증감이 매우 심하며,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는 그 사용 빈도가 더욱 폭발적으로 늘었다. '장티푸스'의 사용 빈도는 콜레라나 감기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기'는 지속적으로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일 뿐 아니라 2000년대 이후에도 빈도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장티푸스와 콜레라는 대표적인 수인성 전염병으로 공중위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 이 두 질병명의 사용 빈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중위생이 개선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런데 사정이 더 열악했을 1960년대 이전에 이들 질병명의 빈도가 잘 잡히지 않는 것은 왜일까?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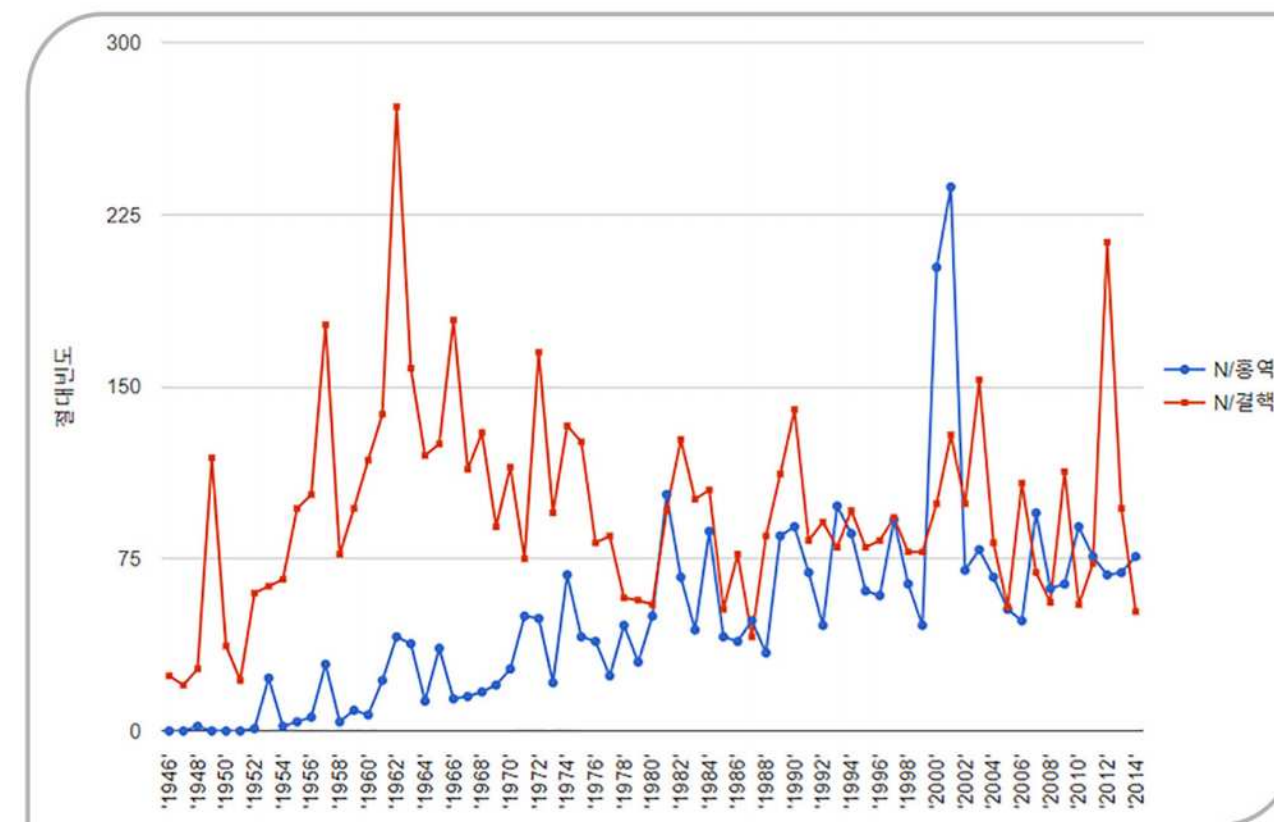


▲ <그림 2> ‘장질부사’와 ‘호열자’의 연도별 사용 빈도

말뭉치를 이용하여 단어의 통시적인 변화를 살필 때 유의해야 할 것은 대상 단어를 표기하는 데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더라도 표기 방법의 변화나 표준어의 등재 여부가 단어의 사용 빈도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림 2>에는 ‘장질부사’와 ‘호열자’의 연도별 빈도가 표시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장티푸스, 콜레라’에 대응된다(‘감기’의 이전 형태로 ‘고뿔’이 있지만 이 말의 빈도는 매우 낮다).

즉 1960년대 이전에 ‘장티푸스, 콜레라’의 빈도가 낮게 포착된 것은 표기상의 문제일 뿐, 실제로 이 질병들은 1960년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1940년대 후반 ‘호열자’의 폭발적인 증가, 한국전쟁 시기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장질부사’의 높은 빈도는 매우 특징적이다. <그림 2>에서는 포착되지 않았으나 1940년대에 ‘호열자’가 크게 위세를 떨쳤으리라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면 이들 이외의 다른 질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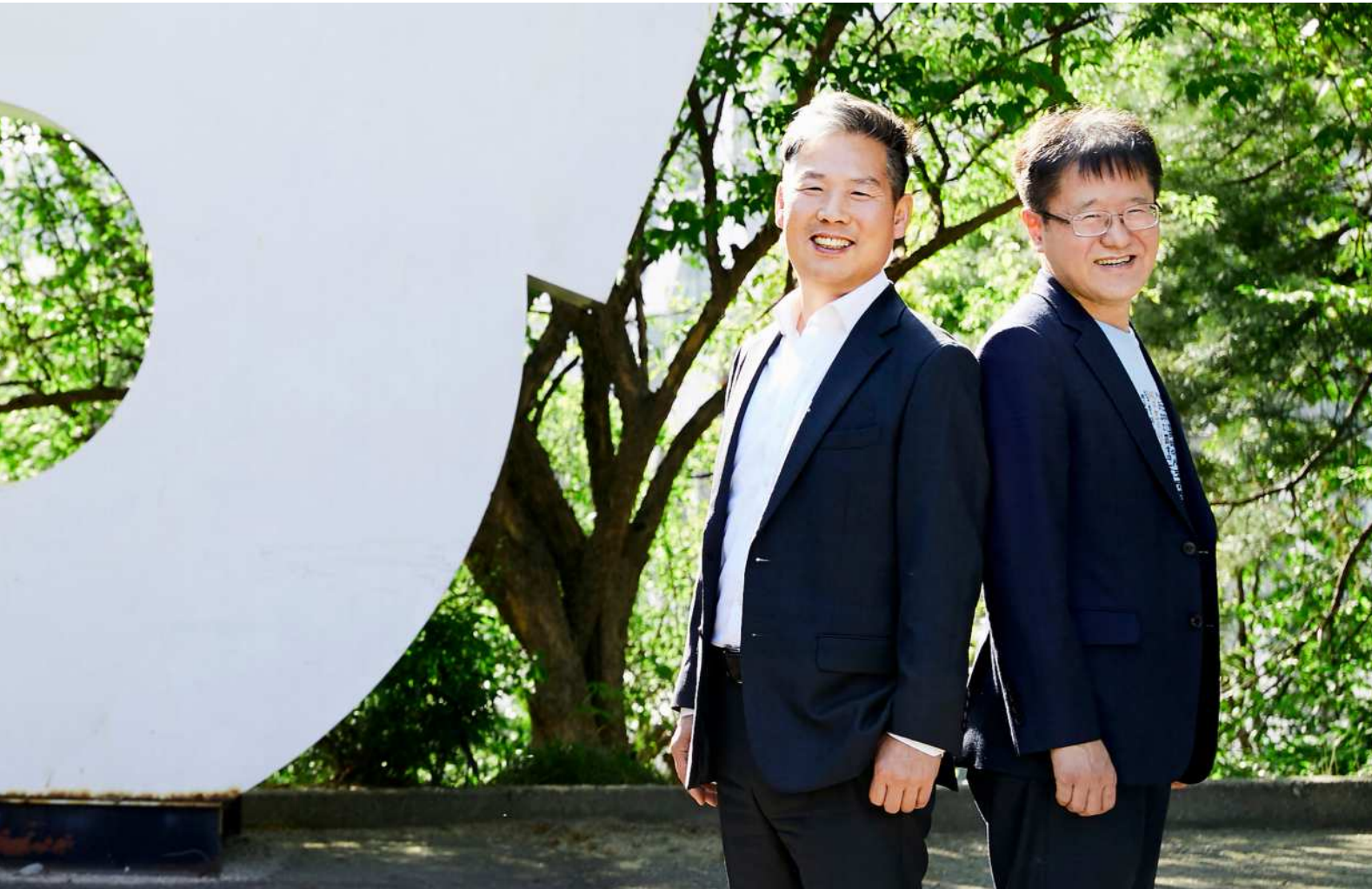
▲ <그림 3> ‘홍역’과 ‘결핵’의 연도별 사용 빈도

‘홍역’과 ‘결핵’은 백신의 개발로 더 이상 위협적인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비교적 높은 빈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그림 3>). ‘결핵’은 1980년대 초반에 최저점을 찍으면서 관심의 범위를 벗어나는 듯하다가 이후 다시 조금씩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홍역’의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홍역’은 주로 ‘예방 접종’과 관련하여 많이 등장하고 또 ‘홍역을 치르다’라는 관용적 용법으로 쓰인 용례가 다수 포함되어, 병명이 자주 사용되는 것이 꼭 우리 생활 속에서 위협적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종 코로나가 전 세계에 위세를 떨치는 2020년에는 ‘신종 코로나’가 주요한 키워드에 포함될 것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질병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의 빈도도 곧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겠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새로운 질병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세종대왕 탄신 623돌 기념 특별 대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홍헌보 교육부장
세종국어문화원 김슬옹 원장

한글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한 세종대왕



현재 전 세계에는 수천 개의 언어가 존재하지만 문자는 40여 개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 세계 곳곳의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에 꼭 맞는 문자를 갖지 못하고 남이 만든 문자를 빌려 쓰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에게만 우리말에 꼭 맞는 문자 ‘한글’이 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으스스할 만하데, 한글은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로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해마다 한글날이 되면 우리의 어깨가 한껏 올라가게 된다. 바로 이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탄신이 5월 15일이다. 기념하지 않을 수 없다.

1956년 창립 이래로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는 일에 힘써 온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홍헌보 교육부장을 만나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 대담에 함께해 준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장은 평생 세종대왕과 한글 연구에 매진한 전문가로서 『한글을 지킨 사람들』, 『훈민정음 해례본 입체강독본』 등의 저자이다. 탄신 623돌을 맞아 민족의 스승 세종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만나 보자.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본관 앞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선 홍헌보 부장(왼쪽)과 김슬옹 원장

스승의 날일까, 세종대왕 나신 날일까?

김슬옹 원장 (이하 김슬옹) 올해로 세종 탄신 623돌입니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스승의 날로 잘 알려진 5월 15일인데요. 언제부터 스승의 날이 세종대왕 나신 날이 된 건가요.

홍헌보 교육부장 (이하 홍헌보) 1949년부터 한글학회가 중심이 되어 5월 15일을 세종날로 정해 기념해 왔어요. 스승의 날은 본래 5월 26일로 1964년 와이엠시에이(YMCA)에서 따로 작게 기념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세종대왕이 야말로 겨레의 큰 스승이라는 의미에서 1965년부터 스승의 날을 5월 15일로 정해 공식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했죠.

김슬옹 정부에서는 여주에서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를 하고 있죠? 그건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홍헌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종대왕을 모신 여주 영릉을 성역화하면서 크게 확충을 하고, 1977년 10월 9일에 이곳에서 제1회 세종대왕 숭모제전을 거행한 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2년부터가요? 5월 15일로 날짜를 바꾸어 숭모제전을 열고 있죠.

김슬옹 세종대왕이 나신 날이면 대단히 기쁜 날이잖아요. 그런데 능에 가서 축하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그동안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있어 왔고 말이죠.

홍현보 그런 의견들이 있죠. 요즘은 시민운동 차원에서 바로잡자고 하기도 하죠. 왜 생일날 무덤에 가서 절을 하느냐고 말이죠.(웃음) 돌아가신 날 무덤에 갈 수는 있지만 무덤에서 생일잔치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박 전 대통령이야 성역화하는 차원에서 축하하는 의미로 시작했겠지만, 사실 그 의미로 봤을 때 안 맞죠. 지금은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 광화문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김슬옹 광화문 광장도 좋고, 거기서부터 1km 정도 떨어진 종로구 통인동에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을 알리는 새김돌이 있잖아요. 그 근처 경복궁도 좋을 것 같아요.

세종의 정신, 한글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근간, 실록 한글 번역 작업

김슬옹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그동안 세종대왕의 업적을 기리는 일에 큰 역할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홍현보 1956년 한글학회 이사장이셨던 외솔 최현배 선생님이 한글날 행사를 하시다가, 행사 식당에서 각계 각층의 지식인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발언을 하셨어요. ‘한글을 창제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인데 세종대왕에 대한 기념 모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날 전격적으로 경제, 학술, 문화 분야 등의 28개 단체장이 찬성해서 발기 총회를 선포함으로써 창립을 하게 된 거죠.

김슬옹 28개 단체장은 훈민정음 28자를 기려서인가요?

홍현보 글쎄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다 함께 웃음) 잘 아시는 이희승, 이병도 선생부터 그야말로 당대의 명망 있는 경제, 학계, 문화 단체에서 모두 모여서 창립을 하게 됐는데, 당시 초대 회장을 최규남 문교부 장관이 맡았으니 지금에 비하면 사업회의 위상이 매우 높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슬옹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그간 해 온 일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뭔가요?



▲ 평생 세종대왕과 한글을 연구해 온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홍현보 교육부장

홍현보 『조선왕조실록』, 그중에서도 「세종실록」을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번역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겠네요. 국가 재정으로 실록 번역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저희거든요. 사업회가 생기고 12년 만인 1968년에 「세종실록」 첫 권이 발간되었어요. 세종이 재위한 32년, 그 방대한 기간을 완간하기까지 8년 정도가 걸렸죠. 그 이후에 태조, 정종 순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김슬옹 최근에는 한글 고전 전체를 실록처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완성되면 우리나라 글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현보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한국고전번역원 누리집에 접속하면 다양한 한문 고전 자료들을 통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글과 관련된 자료들을 원문은 물론이고 현대어 번역, 주석, 원전 사진 등을 모두 입력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db.sejongkorea.org)을 구축해서 작년 한글날에 시연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5세기 훈민정음 언해본부터 각종 한글로 된 문헌만을 선별해서 우리 회가 199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주사업으로 간행하고 있어요. 거의 200책에 가까운 역주본이죠. 3년 전부터는 그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양한 검색기능을 첨가함으로써 관련된 말을 모든 한글문헌에서 찾아내어 앞뒤 문장과 함께 보여 주는 것입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누리집에서 「세종고전 데이터베이스」 방에 들어가면 원전 책들과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올려져 있고, 검색창에 찾고자 하는 낱말을 적으면 모든 책들에서 그 낱말의 용례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죠.

김슬옹 국어학자, 국어사학자, 한글학자 등이 시연회에 와서 다 흥분했잖아요.(웃음) 책으로 볼 때는 수많은 문헌들을 찾아봐야 하는데, 이젠 일관되게 검색이 되고 원문을 검색하면 용례와 함께 관련된 모든 책이 뜨잖아요.

홍현보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정신이자 업적은 쉬운 글말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문으로 쓰여 있거나, 한글로 쓰여 있어도 한문을 모르면 알 수 없는 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번역하고 정보화하는 일은 한글 창제에 담겨 있는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업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요.

김슬옹 일부에서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것이 ‘한글’이나, ‘훈민정음’이나 하고 구분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던데, 한글은 좁은 뜻으로는 1910년 이후의 근대 명칭이지만 넓은 뜻으로는 훈민정음을 다 아우르는 거죠.

홍현보 그렇죠. 1910년 주시경 선생이 한글이란 이름을 붙였고 그전에는 훈민정음이라고 했죠. 사실 훈민정음이라는 말도 실록을 보면 한 10번 나올까 말까 해요. 시기도 성종 이후로 끊어지고요. 세종부터 줄곧 ‘언문’이라고 불러왔죠. 당시 백성들은 훈민정음이란 말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연산군의 탄압이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워낙 유학자들이 언문을 싫어하고 폄하했어요. ‘언해’라는 말도 언문으로 번역한다는 말이잖아요? 원래 낮춘 말이 아닌데 양반 사대부들이 깔보니까 조선 말경에 낮춘 말처럼 변질되었어요. 세종은 이두문으로 주고받던 공문서와 사문서를 언문으로 작성하도록 처음부터 추진하셨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

김슬옹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한글은 세종대왕이 단독 창제했다고 보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헌이 『세종실록』과 『훈민정음 해례본』인데, 『세종실록』에는 세종이 1443년 음력 12월에 창제했다는 기록이 있고,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서문에 세종이 친히 모든 백성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28자를 새로 만들었다고 쓰여 있어요. 또 지금의 발문 비슷한 ‘정인지서’에도 임금이 글자를 만들었으니 해설 책을 쓰라고 해서 썼다고 돼 있어요. 더욱 중요한 건 세종대왕이 단독 창제를 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진정성인데, 이 또한 실록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17년 전인 1426년(세종 8년) 당시의 실록을 보면, 법률을 백성들한테 알려야 하는데 양반들조차 어렵다고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두로 해 볼까 했지만 이두도 한자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또한 어렵고, 그래서 답답한 나머지 1434년(세종 16년)엔 한 쪽엔 한문 한쪽엔 그림을 그려서 만화책까지 펴냅니다. 『삼강행실도』가 그것이지요. 그래도 안 되니까 피나는 연구 끝에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창제했다고 실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홍현보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 집현전 학사 협찬설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 오랜 한글운동과 연구 공로로 문화체육부장관상과 외솔상을 받은 김슬옹 원장

김슬옹

집현전 학사 협찬설이란 『훈민정음 해례본』을 펴낼 때 세종을 도와 집필에 참여한 8명이 함께 훈민정음도 함께 창제했다는 것인데 몇 가지 기록을 살펴보면 신빙성이 없는 얘기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8명은 일생 동안 한글을 개인적으로 안 썼었어요. 유명한 양반 사대부들은 평생 있었던 일들을 문집으로 남기는데 거기에 한글로 된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반포된 당시에 정인지만 세종대왕보다 한 살 많고, 최항이 30대, 나머지는 과거에 급제한 지 얼마 안 된 20대 후반들이었어요. 신숙주가 해례본 저술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런 신숙주조차도 1443년 창제 직전 일본에 통신사로 갔다 와서 관여를 하려야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집현전 학사 협찬설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홍현보

최근에는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핵심적인 구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자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어도, 세종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고 한 기록은 세종실록 1443년 12월 기사를 비롯해 수없이 많습니다. 최만리 등의 반대 상소가 있고요, 『훈민정음 해례본』의 어제 서문, 정인지 서문, 『동국정운』의 신숙주 서문, 정인지가 지은 세종대왕 영릉신도비명, 『홍무정운역훈』의 신숙주 서문, 『월인석보』의 세조 서문, 『열성어제』의 훈민정음 서문, 이승소의 세종장헌대왕 천릉지석문, 서거정의 최항 묘비명, 이승소의 신숙주 묘비명, 한계희와 강희맹의 『금강경삼가해』 발문, 『필원잡기』와 『역어지남』의 서거정 서문, 『배자예부운략』(갑인자본)의 부록, 『경세훈민정음』의 최석정 글, 『훈민정음운해』의 신경준 글, 『훈음종편』의 이사질 글, 『증보문헌비고』 악고와 예문고, 홍양호의 상소문, 고종 때 『오주연문장전산고』의 이규경 글 등에서 한결같이 세종 임금이 친히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슬옹

신미대사는 한글 보급 공로자로서 충분히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인물인데, 최근에 창제 공로자로 입길에 오르내리는 건 신미대사의 업적을 오히려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홍현보

세종 사후 세조는 간경도감을 설치해서 한문 불전 31종 500권과 언해 불전 9종 35권을 간행합니다. 그때 중추적인 구실을 한 것이 신미대사였으니 창제 초기에 훈민정음을 널리 퍼뜨리는 데에 큰 자취를 남겼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과 한글의 가치를 연구해 온 두 사람은 시종일관 진지하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시대를 초월한 완전한 천재, 세종대왕

김슬옹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건 기적이예요. 여기서 기적이란,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걸 뜻하는데요. 18~19세기 실학자들 태도를 보면 그게 왜 기적인지를 잘 알 수 있지요. 정약용, 박지원, 박제가 같은 실학자도 지식과 정보를 대중적으로 나누는 걸 거부합니다. 한글 사용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5세기에 그런 틀을 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세종대왕의 정신이 실록에 “하늘 아래 양민과 천민의 차이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사람의 존귀함을 나타낸 기록으로 남아 있고 그런 정신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죠.

홍현보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김 원장께서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당시 조선은 건국 초기를 맞아 법률과 제도를 정비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했어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가 지도자가 어떤 가치관과 능력을 갖추어야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는지 실감하고 있잖아요? 세종은 통치자로서 국왕의 권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식을 갖춘 지식인이었습니다. 새로운 국가에 맞는 법률과 제도도 중요하지만 현대 사회가 맞춤법과 표준어를 정립하듯이 왕권이 바로 서려면 말과 글이 바로 서야 했고, 바른 말글 정책을 세우는 것은 통치자의 당연한 책무였죠. 중국에서도 그랬어요. 국왕이고 지식인이었던 세종이 혼란한 말글을 바로 세워 몸소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 문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고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종과 최만리 일파가 논쟁을 벌인 기록을 보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든 것인데 설충은 잘했다 하고 내(세종)가 한 것은 왜 쓸데없는 짓이라 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김슬옹

저는 국민들이 세종대왕을 단순히 임금보다는 융합인문학자로 기렸으면 좋겠어요. 인문학은 사람다운 세상을 위해 학문을 연구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언어는 성찰이 중요하고, 역사는 ‘왜’라는 근본을 따져야 하고, 철학은 또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하니 문학까지 해서 인문학이죠. 세종대왕은 언어뿐만 아니라 인문학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 수학, 음악 등 다양한 학문을 끌어왔습니다. 이러한 통섭과 융합의 인문학적 배경이 훈민정음 창제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민정음에 담긴 민본(民本), 애민(愛民), 위민(爲民)의 정신은 세종대왕이 일생 동안 이룬 정치적 성과와 학문적 체계에서도 발현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의 탄신을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기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홍현보

그 옛날 임금이 통치하던 시대나 지금 민주주의 시대나 마찬가지로 봐요. 어떻게 통치하느냐가 중요하죠. 세종은 국가 최고 책임자로서의 ‘민본’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두었습니다. 이 민본은 민주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세종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모든 과학기기나 정치, 윤리, 농술, 의학, 국방, 외교 등을 책으로 정리했어요. 통치자로서 그걸 보는 지식과 혜안이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김슬옹

우리 두 사람 모두 평생을 세종 연구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늘 감탄하게 되잖아요. 세종대왕은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많은 업적을 남기셨어요. 임금이 되고 나서 집현전을 세워서 인재를 키우고 그걸 바탕으로 과학, 음악을 발전시키고, 국방을 정비하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백성 중심의 농사 정책을 펴서 식량 문제를 개선했죠. 또 생애 막바지에 훈민정음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뤘습니다. 하나의 업적이 다음 업적의 바탕이 됩니다. 문제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간 것을 확인할 때마다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홍현보

『조선왕조실록』, 이 지금까지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세종대왕이 실록을 한 권만 만들면 나중에 난리가 날 수 있으니 이것만으로 안 된다고 하셔서, 같은 책을 여러 권 만들어 따로 보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짜 임진왜란이 나서 다 타고 전주사고본만 유일하게 남았잖아요.

선조가 다시 그대로 인쇄해서 5부를 만들었죠. 「세종실록」에는 부록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직접 제작하거나 신하들과 함께 제작에 참여한 세종악보, 지리지, 오례의, 칠정산내외편 등이죠. 「정간보」라는 악보는 세종이 만든 것이죠.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가사도 세종이 썼는데 그게 「용비어천가」예요. 그때 필사된 악보가 정족산본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초이자 최고의 필사본은 실록에 있는 「용비어천가」라고 얘기합니다. 세종이 실록을 여러 권 만들라고 했기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지킬 수 있었고, 우리 역사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으니 이보다 위대한 게 없죠. 다 타버렸으면 우리가 뭘 가지고 공부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벅차옵니다.

글: 강은진

사진: 김영길

우리말 풀기



이달에도 열심히 준비한 <쉽표, 마침표>, 재미있게 보셨나요?

특히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을 맞아 ‘세종대왕 찾기’ 행사도 준비했으니, 꼭 참여해 보세요!

문제 1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이다. 격(格)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에는 많은 학문적 문제가 있으나, 국어의 학교 문법을 바탕으로 말하자면 문장 성분의 종류를 표시하는 체계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제 2

수량을 나타내는 말은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또는 수를 적을 때 ‘□□□’로 띄어 써요.
하지만 순서를 나타낼 때나 숫자와 함께 쓸 때는 붙여 써도 돼요.

단서 실전 띄어쓰기

문제 3

□□□, □□□은 뉴노멀을 다듬은 우리말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이나 표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단서 우리말 다듬기

문제 4

칼치, 까나리, 농어, 방어, 뱀어, 송어, 은어, 흥어, 민어 등은 우리 일상에서 아주 익숙한 물고기 이름들이다.
그런데 ‘□□□’는 낯설다.
남한에서 ‘□□□’는 ‘까치복’과 같은 말이다.

단서 표준어 바깥의 세상

문제 5

그러나 ‘홍역’은 주로 ‘☐☐☐☐’과 관련하여 많이 등장하고
또 ‘홍역을 치르다’라는 관용적 용법으로 쓰인 용례가 다수 포함되어,
병명이 자주 사용되는 것이 꼭 우리 생활 속에서 위협적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서 말뭉치로 바라보기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동의(필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5. 12.~2020. 5. 26.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6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0년 4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노영미(8955) 문형주(8076) 김대영(3759) 김경선(8125) 정미정(9242)
윤수민(5972) 강종대(7770) 석원옥(7230) 양경민(7216) 정보인(4404)

우리말 풀기



이번 <심표, 마침표>는 5월의 꽃들처럼 다채로운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읽기와 쓰기 생활' 현주소를 통계로 전해드리고,
5월에 태어나신 세종대왕을 기리는 특별 대담도 준비했습니다.
쉽게 다듬은 우리말 영상을 보고 선물을 받을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말 풀기'로 복습까지 하면 더 좋겠죠?

문제 1

불특정하게 가리킨다는 것은 꼭 집어서 가리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의 '□□'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이와 같은 뜻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청자 입장에서는이 대명사의 지시 대상이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것이므로 이 용어 사용이 부적절한 것은 아니다.

단서 쉽게 읽는 문법 용어

문제 2

알 '□' 말 '□' 자주 헛갈리는 '□'의 띄어쓰기,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먼저, '□'이 의존 명사로 쓰였다면 띄어 쓰고,
연결 어미로 쓰였다면 붙여 쓴다는 것을 명심해 두세요.
집힐 '□' 말 '□' 까다로운 띄어쓰기 늘 그렇듯
실전 띄어쓰기에서 배워 보세요.

단서 실전 띄어쓰기

문제 3

『우리, 뭐라고 부를까요?』는 기존의 호칭·지칭어를 포용하면서도
그동안『□□□□□□』에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들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제시하여,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조화로운 언어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단서 국어원 소식

문제 4

□□□□□□: 지난 1년간 교과서, 학습 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를 제외한 일반 도서(종이책, 전자책, 소리책)를
1권 이상 읽은 사람의 비율

단서 국어정책 통계

문제 5

그런데 진짜 임진왜란이 나서 다타고 만 유일하게 남았잖아요.
 선조가 다시 그대로 인쇄해서 5부를 만들었죠.
 「세종실록」에는 부록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직접 제작하거나 신하들과 함께
 제작에 참여한 세종약보, 지리지, 오례의, 칠정산내외편 등이죠.

단서 우리말, 그리고 사람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 참여하기” 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 수신 동의(필수)를 입력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

·응모기간

2020. 5. 12.~2020. 5. 26.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심표, 마침표.” 6월 호에 공고함

·선물

당첨자 열 분께는 음료 교환권을 드립니다.



2020년 4월 호 우리말 달인 당첨자

노영미(8955) 문형주(8076) 김대영(3759) 김경선(8125) 정미정(9242)
 윤수민(5972) 강종대(7770) 석원옥(7230) 양경민(7216) 정보인(4404)